

‘스마트팜 최적 환경 설정값 설정 알림 가능’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매주 자동으로 농장별 생육상태 진단해 문제 발생시 농장주에 문자 메시지 발송도... 농진청, 현장 시연 나서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스마트팜(지능형 농장)의 최적 환경 조건(환경 설정값)을 설정해 알려주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플랫폼(운영체제)을 구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스마트팜 농가에서 수집한 온실 환경 데이터(자료)와 작물생육 데이터를 인공지능 모델이 분석해 작물 재배시기와 생육상태에 알맞은 조건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또한, 매주 자동으로 농장별 생육상태를 진단해 문제가 발견되면, 농장주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서비

스도 지원한다. 농가에서는 농진청 플랫폼(운영체제)을 통해 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는 토마토, 딸기, 파프리카 농장에 적용 가능하다.

농진청은 16일, 전남 화순군 딸기 스마트팜에서 허태웅 청장을 비롯해 전남도원, 농업인, 기업인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시연회를 열고 기술 적용 사례와 효과를 공유했다. 이어 스마트팜 수집 데이터 활용과 발전 방안, 개선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도 가졌다.

딸기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환경설정

관리 기술은 최근 4년간(2017~2020) 연동형 스마트팜 9농가, 단동형 스마트팜 93농가에서 수집한 생육조사 및 환경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발됐다. 농진청은 이 기술을 적용해 겨울 재배시기 환경을 개선할 경우 연간 10아르(a)당 6,000kg 이상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 결과, 이 기술을 연동형 딸기 스마트팜에 적용한 농가(10아르 당 7,343kg)는 일반농가(4,686kg)보다 약 1.6배 생산량이 높았다.

딸기 재배 농업인 문일주 씨는 “지금까지는 경험에 의해 농사를 지어왔는데, 인공지능 기술이 최적의 재배환경 조건을 알려주면 안정적인 딸기 농사가 가능해 생산량도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16일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이 딸기를 재배하는 스마트팜 농장에서 열린 ‘스마트팜 생산성 향상기술 플랫폼 시연회’에 참석해 적용 사례와 효과를 공유하고 있다.

지자체 협력사업 품 조성

전북농협, 시군 상생정담(相生情談) 순차 개최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사장은 17일부터 진안군을 시작으로 각 시군지부 별로 4월말까지 ‘시군 상생정담(相生情談)’을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상생정담행사는 ▲시군별 2021년 지자체협력사업 방향

및 추진계획 발표 ▲특색사업 선포식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상생 토의 ▲농협 창립60주년 맞이 시군 릴레이 응원 메시지 전달 등으로 구성된다.

전북농협이 올해 실시하는 상생정담은 지자체, 농협, 그리고 농업인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지역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지자체협력사업은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마련됐다.

전북농협은 2021년을 기점으로 ‘농업이 대우받고, 농촌이 희망이며, 농업인이 존경받는 함께하는 100년 전북농협 구현’을 위해 지역분부는 ‘13개 역점사업’을, 시군지부는 ‘1시군 1특색사업’을 선정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사적인 역량을 결집 중에 있으며, 이번 시군 상생정담은 ‘1시군 1특색사업’ 성공을 위한 첫걸음인 셈이다.

정재호 본부장은 “이번 상생정담을 통해 지자체, 농협, 농업인단체가 상생협력의 지혜를 모아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실익 증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분부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은행, 김제 농업인 등 대상 58억원 규모 금융지원 실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김제시에 소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의 경영 안정 도모와 소득 증대를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김제시의 힘을 모아 58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 16일 전북영업부에서 법전북농협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NH-Amundi 자산운용이 출시한 친환경 신상품 'HANARO 탄소효율그린뉴딜' ETF에 가입하는 행사를 가졌다.

그린뉴딜 ETF 가입으로 ESG경영 실천

NH농협은행 전북본부, HANARO 탄소효율그린뉴딜 ETF 가입 행사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16일 전북영업부에서 법전북농협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NH-Amundi 자산운용이 출시한 친환경 신상품 'HANARO 탄소효율그린뉴딜' ETF에 가입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정재호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장, 장기요 NH농협은행 전북영업본부장, 이숙 농협생명 전북총국장, 김현미 농협은행 전북총국장, 김태호 농협네트웍스 전북지사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5일 출시된 'HANARO 탄소효율그린뉴딜' ETF는 금융지주 ESG(환

경·사회·지배구조)비전과 추진계획의 체계적인 실행차원에서 매출액 대비 탄소배출량이 적은 저탄소 기업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해 투자하는 상품이다.

장기요 본부장은 “ESG 경영은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 요소로 당행은 농업금융 전문은행으로서 친환경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북형 그린뉴딜 정책과 탄소중립에 적극적인 동참을 통해 녹색금융 선도은행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월 최고액 227만원 · 최고령 수급자 107세

지난해 국민연금 지급 통계 현황

월 1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 전년대비 27.7%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16일 2020 국민연금 지급 통계 현황을 공개하며 지난해 12월 당월 기준 국민연금 최고액은 월 227만원, 최고령 수급자는 107세 라고 밝혔다.

노령연금 최고 수령액은 월 226만 9,000원, 누적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수령한 수급자는 총 2억187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연금 최고액은 170만3,000원, 유족연금 최고액은 381만9,000원으로 확인됐다.

최고령 수급자는 107세로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녀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노령연금 최고령 수급자는 92세, 장애인금은 90세이다. 100세 이상 수급자도 최초로 100명을 넘었다. 지난해 12월 당월 기준 101명으로 그중 여성이 81명이다.

공단은 지난 한 해 총 559만명에게 25조6,500억원의 국민연금을 지급했다. 전체 수급자는 전년 대비 42만5,000명 증가한 559만명으로 연

수급수급자는 539만명, 일시금 수급자는 20만 명이다.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 80만 명 넘어, 월평균 93만원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연말 기준 전년 대비 25.2% 증가한 83만8,000명으로 평균 연금액은 월 93만원이다. 2015년에는 32만 2,498명에 불과했으나, 제도가 성숙해짐에 따라 5년 전 대비 약 2.6배 증가한 83만8,099명까지 늘어났다. 전체 수급자 중 18.8%를 차지한다. 30년 이상 가입자는 5만5,000명으로 이들의 평균 연금액은 월 136만 8,000원으로 확인됐다.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는 총 329만7,000명, 평균 연금액은 월 54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 5년 전 대비 3배 이상 증가
지난해 국민연금 지급 통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월 1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34만369명으로 전년 대비 27.7% 증가했다. 5년 전에 비하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이 중에서도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8년 10명에서 2020년 437명으로 2년만에 44배 증가했다.

▲부부수급자 40만쌍 첫 돌파, 합산 최고 382만원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42만7,467쌍(85.5만명)으로 2019년 35만5,382쌍 대비 20.3% 증가했다. 부부 수급자 합산 최고액은 월 381만9,000원이며, 평균 연금액은 월 80만7,000원이다. 월 합산 300만원 이상 부부 수급자가 최초 발생한 지난해 2018년 6쌍에서 2년만에 70쌍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김용진 이사장은 “공단은 고객편의를 높이기 위해 급여청구 시 계좌와 사본 제출 전면 폐지, 터치스크린 도입 등 디지털 창구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최상의 연금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농어민 위한 의정활동으로 전문성 인정

농식품부, aT 신임 사장에 김춘진 전 의원 임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제19대 사장에 김춘진 전 국회의원이 임명됐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김 신임 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1월 신임 사장 후보를 공개 모집 후 사장 추천위원회의 면접 심사 등을 거쳐 김 신임 사장을 최종 후보로 추천했으며,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얻어 이날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김 신임 사장은 17·18·19대 국회위원을 지낸 3선 의원 출신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농림어업 및 국민식생활발전포럼 상임 대표, 더불어민주당 산내구계혁신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전북 총괄 선대위원장, 더불어 민주당 최고위원 등 국

회직과 당직을 두루 거쳤으며, 특히 농어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농식품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김 신임 사장은 의정활동 기간 동안 농어민 소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농수산 직거래활성화법, 농수산물유통관리법, 수산물유통관리지원법 제정을 주도했으며, 농수산식품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앞장서 왔다.

김 신임 사장은 16일 나주 aT 본사에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취임사를 하고 임기를 시작했다.

김 신임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기후위기, 코로나19로 인해 건강하고 안정적인 먹거리 수급이 더욱 중요해지고 강조되는 상황에서 aT 사장으로 임명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농수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온 우리 aT 임직원들과 함께 제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기반으로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양중도 새만금청장, 해빙기 새만금 도로건설 현장 점검

양중도 새만금개발청장은 16일 새만금 남북도로 4공구 도로 건설 현장을 방문해 해빙기 대비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했다.

양 청장은 현장을 점검하며, 동결 및 융해로 인한 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철저히 관리토록 하고, 관련 안전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근로자들의 개인 위생관리를 비롯해 사업장과 숙소의 청결 유지를 당부하는 한편, 의심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 /유호상 기자

신협, '어부바신협(ON) 상해공제' 출시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가 월 5,000원의 부담 없는 공제료로 다양한 상해 사고를 보장하는 '어부바신협(ON)상해공제'를 선보인다.

어부바신협(ON)상해공제는 상해사고에 의한 신체 손해, 화상, 수술, 입원 등 일상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위험을 매달 커피 한 잔의 저렴한 가격으로 보장한다. 유해당 상품으로 배당금과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돼 뛰어난 가성비 장점이다. 신협공제 연간 이익 중 계약자 자원의 배당금(연 1회 지급하며, 연말 정산 시 1년 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보장성 공제 항목)도 받을 수 있다.

세부 보장 내용으로는 ▲상해사망(1천만원) ▲강력범죄피해 위로금(1사고당 100만원) ▲상해수술(1사고당 30만원) ▲상해입원(일당 1만원) ▲화상진단(1사고당 20만원) ▲상해 응급실 내원진료(내원 1회당 1만원) 등이 포함됐다.

가입 조건은 만 19세 이상 70세 미만 성인으로, 공제료는 성별 및 나이에 관계없이 5천원으로 동일하다. 공제기간은 1년, 3년, 5년 중 선택 가능하며, 환급금에 연 복리 2.4%의 확정 이율이 적용된다. 동 상품은 모바일 전용 상품으로 신협 모바일 앱 '온(ON)뱅크'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소상공인 온라인 시장 진출 촉진 돕는다

전북중기청, 판로 지원 접수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 촉진을 돕는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을 17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역량을 고려해 진출역량을 강화하고, 진출기반 마련과 인터넷 소싱,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채널별 입점 등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유통환경의 급격한 비대면·온라인화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수단으로 온라인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함에 따라 2020년 대비 올해는 지원예산도 762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올해부터 백년가게 등 우수 소상공인과 온라인 첫걸음 또는 진출 초기 소상공인 등은 사업 선정 시 우대(가점) 등을 통해 중점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내용은 ▲교육·컨설팅 등 온라인 시장 진출 역량 강화 ▲온라인 진출 기반 조성·운영 ▲민간 온라인 채널 입점 등 진출 지원 ▲라이브커머스 프로그램 운영 및 크리에이터 육성 등이다.

세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및 중소기업유통센터(www.sbc.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so.or.kr)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신청은 중소기업 유통지원 전문 포털인 이음스타즈(www.instars.or.kr)에서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김윤상 기자

무주국유림관리소, '산림드론 감시단' 운영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정상용)은 대형 산불 예방대책기간인 4월 18일까지 산발방지에 총력 대응을 다하기 위해 '산림드론 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드론 감시단'은 관내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림 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하여 ▲산림 연결 지역 불법 소각 행위 단속 ▲화기물질 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주=전문선 기자